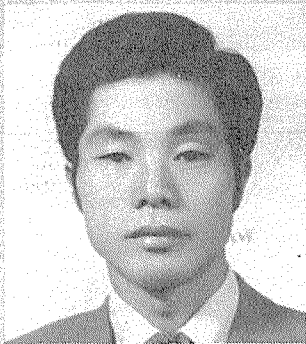


# 日本の 나프타需給 및 價格에 대한 考察



姜完植

〈動力資源部 生産流通課・化工技佐〉

## I. 머리말

原油에서 정제되어 제조되는 10여가지의 石油製品中에서 우리 인간생활에 가장 밀접하고도 다양하고, 그리고 또한 有用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예로 들라고 하면, 나는 서슴치 않고 나프타(Naphtha)라고 하겠다.

그 이유는 石油製品의 대부분, 즉 揮發油와 灯·輕油 및 B-C油等은 그 제품이 지니고 있는 성분을 燃燒의 과정을 거쳐 熱量으로 이용키 위해 燃料용으로 사용되어지는데 반하여 나프타는 燃料로 이용되지 않고, 그 제품이 지니고 있는 성분을 化學적 反應을 이용하여 인간생활에 有用한 各種 생활필수품등을 만드는 原料용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石油(原油)에서 생산된 石油製品(나프타)을 原料로 한 공업을 石油化學工業이라 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이렇게 나프타는 대부분이 石油化學工業의 原料로 사용되어지고 가공된 石油化學製品은 우리 인간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各種 생활필수품으로서, 우리 나라의 경우 전체 生産量중 약 40%는 內需用으로 공급되고 나머지 약 60%는 輸出用原料로 사용되어지거나 수출되기 때문에 他石油製品과는 달리 油價政策上 石油化學工業의 국제 경쟁력 측면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油種이므로 나프타의 가격 및 수급문제는 石油政策中 상당히 중요한 部位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또한 중요한만큼 難題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부는 그동안 石油化學工業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國內 나프타가격을 國際價格보다 低價로 유지해 왔으나, 蔚山石油化學團地에 이어 麗川石油化學團地가 80년도부터 가동하기 시작하고 第2次 石油波動으로 인한 石油化學業界의 不황이 82년 하반기경부터 好況局面으로 반전하게 되자, 관련업계의 가동률 증가에 따른 나프타 수요급증과 脫石油政策에 의한 精油業界의 가동률 저조로 國內 나프타 生産공급 물량이 달리게 됨에 따라 精油業界와 石油化學業界間의 나프타 수급 및 가격논쟁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연유된 國內나프타문제는 결국 정부가 83년 8월 國內나프타가격의 國際FOB 價水準調整과 함께 강력한 수급통제를 並行케 되었

으며, 斷片的이고도 일시적인 미봉책으로서는 구조적인 나프타수급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자 드디어 이번에 다시 第2次로 좀더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나프타수급 및 가격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는데, 금년 84년 3월 8일 나프타対策에 참여해온 실무자로서 우리나라의 石油化学業界와 精油業界가 정부의 나프타대책을 이해하고 실시해 나가는데 다소라도 상호협조하고 양보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여 이번 나프타対策과 관련, 이웃 日本의 나프타수급 및 가격제도에 대한 조사자료를 일부 정리하여 여기에 간략히 소개코자 한다.

## II. 日本의 나프타需給現況

### 1. 需 要

日本의 나프타수요는 第2次 石油波動이후 석유가격의 급등과 世界景氣의 침체 등에 따른 石油化学工業의 불황으로 나프타수요가 79년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지난 82년도까지 連4년간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83년도에는 석유화학 공업이 전세계적으로 好況局面으로 급변함에 따라 82년대비 4.9%나 증가하였다. 즉 <表-1>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78년도의 연간 나프타수요가 2억 2천만배럴(60만B/D 규모)이었으나, 82년도에는 1억 3천 7백만배럴(38만B/D 규모) 수준으로 연평균 11%씩 감소되었으나, 지난 83년도에는 第2次 오일쇼크 이후 처음으로 나프타수요가 4.9%가 증가되어 1억 4천 4백만배럴(39만B/D 규모)이 되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前年度에 나프타 수요가

위낙 急增加한 때문에(당초 通産省이 계획했던 1억 2천 6백만배럴보다 무려 14%나 증가됨) 전년 대비 약 1%내의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85년도 이후에는 연평균 약 2% 정도씩 다시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부문별 나프타수요는 日本도 우리 나라와 같이 石油化学工業用 나프타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외에 비료용, 가스용, 연료용등으로 구성되고 있으나, 전체 나프타수요중 石油化学工業用 나프타수요의 占有比는 매년 증가되고 있어 76년도의 77% 수준에서 83년도에는 92%까지 상승하였으며, 85년도 이후에는 94% 수준에 도달될 전망이다.

### 2. 供 給

한편 많은 量의 나프타수요에 대한 日本의 나프타生産供給狀況을 살펴보면 第2次 오일쇼크이후 석유수요의 감소등으로 인하여 原油導入量 및 原油精製量의 감소와 揮發油와 灯·輕油等の 製品需要輕質化로 인하여 나프타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하여 76-83년 기간중 연평균 12.3%씩 감소됨으로써 總나프타生産量은 76년도의 1억 8천 3백만 배럴에서 83년도에는 7천 3백만배럴까지 감소하여 지난해의 생산량은 76년 생산량의 약 40%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나프타생산량이 감소되자 나프타의 輸入使用量은 증가되기 시작하여 나프타 총공급량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던 나프타輸入量이 지난해에는 무려 53%나 차지하는 8천 2백만배럴(22만B/D 규모)이나 되었다.

<表-1> 日本의 나프타 需給実績

(單位: 百萬배럴)

		76	77	78	79	80	81	82	83
需 要	石油化学 (석유화학점유비)	172 (77%)	172 (78%)	183 (83%)	176 (83%)	139 (84%)	128 (88%)	123 (90%)	133 (92%)
	肥料, 가스, 燃料	51	48	37	35	26	17	14	11
	計	223	220	220	211	165	145	137	144
供 給	生 産	183	179	160	157	132	108	81	73
	輸 入 (수입구성비)	50 (22%)	53 (23%)	67 (30%)	62 (28%)	42 (24%)	47 (30%)	62 (44%)	82 (53%)
	計	233	232	228	219	174	155	143	155

日本の 나프타輸入量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石油製品中 揮發油等の 輕質油수요가 많기 때문인데, 日本의 石油製品 수요구조는 輕質油와 重質油의 비중이 60 : 40으로서 輕質油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輕質油中에서도 나프타溜分인 揮發油가 가장 많아 全体石油消費量中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나프타와 灯油 및 輕油가 비슷하게 12~13%씩 차지하고 있어 30%를 차지하고 있는 B-C油보다도 훨씬 많은 量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프타價格보다 훨씬 높은 揮發油와 灯油의 수요가 월등히 많고 同製品들이 차량용 및 난방용 필수油類이기 때문에 소비지경제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日本의 정유업체도 原油를 精製하여 製品生産時 휘발유 및 灯油를 우선 生産供給함으로써 나프타生産量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더우기 휘발유와 灯·輕油의 수요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 나프타生産收率は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表-2〉 참조).

〈表-2〉 日本의 석유제품 수요 증감추세

單位 { 수요(천B/D)  
전년대비(%)

	81		82		83	
	수요	전년대비	수요	전년대비	수요	전년대비
휘발유	607 (17.7)	1.7	610 (19.1)	0.5	6.7 (19.4)	1.2
나프타	412 (12.0)	△15.8	376 (11.8)	△ 8.7	395 (12.4)	4.9
제트油	49 (1.4)	△ 4.5	48 (1.5)	△ 2.2	47 (1.5)	△ 2.7
灯油	421 (12.3)	3.7	383 (12.0)	△ 9.1	397 (12.5)	3.7
輕油	377 (11.0)	1.4	380 (11.9)	0.8	399 (12.6)	5.2
B-A	359 (10.5)	△ 2.9	332 (10.4)	△ 5.9	332 (10.4)	0.1
B-B	75 (2.2)	△17.1	52 (1.6)	△30.8	43 (1.4)	△17.3
B-C	1,135 (33.1)	△10.9	1,012 (31.7)	△10.9	949 (29.9)	△ 6.2
計	3,429 (100)	△ 4.9	3,192 (100)	△ 6.9	3,179 (100)	△ 0.4

〈註〉 ( )는 구성비

〈表-3〉 석유제품 생산수율 비교

(單位 : %)

유종별	82실적	90전망
휘발유	18.8	22.9
나프타	6.8	5.3
제트油	2.3	2.6
灯油	11.6	13.2
輕油	11.6	14.4
B-A	9.4	9.8
B-B	1.4	0.4
B-C	29.6	23.5

〈表-4〉 82. 8~83. 10월중 나프타생산 수율현황

(單位 : %)

	수율		수율	
82. 8	7.10	83. 3	6.70	
9	6.77	4	6.67	
10	6.12	5	5.48	
11	5.65	6	5.47	
12	6.63	7	5.86	
83. 1	6.76	8	6.31	
2	6.60	9	6.39	
		10	5.13	

〈註〉 82. 8~83. 10월중 83. 10월이 5.13%로 최저 기록.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日本通産省은 83년 4월 나프타생산량을 감소하고 灯油의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灯油의 初溜点を 150℃에서 145℃로 조정했으며, 常圧증류탑도 약간 개조하여 나프타收率을 축소시켜 83년도 나프타생산량을 약 2천만배럴 減産하고 수입량을 증대키로 결정한 바 있었다.

日本의 나프타輸入充當문제는 이와같은 구조적인 나프타生産不足問題도 있지만 국내생산나프타(약칭하여 “国産나프타”라 기술코져 함)가격이 輸入나프타價格보다 비싸기 때문에 日本石油化学業界가 輸入나프타를 選好하게 되는 경향도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日本의 나프타輸入対象国數는 약 20여개국이며, 주로 中東産油国과 東南亞現物市場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이며, 그 다음이 싱가포르, 쿠웨이트, 中共, 바레인, UAE 등의 순서인데 83년 이후에는 石油

化学用 나프타輸入物량이 한달에 800~900만배럴 (25~30만B/D 규모) 정도로 우리 나라年間 나프타 수요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物量을 취급하고 있다.

참고로 83년도 10월과 11월, 그리고 1~11월중 나프타輸入國別 輸入量과 輸入單價를 살펴보면 <表-5>와 같다.

<表-5> 日本의 83. 1~11월중 석유화학용 나프타수입실적현황

單位 { 물량(천배럴)  
단가(CIF기준)\$/B

수입국	83. 10		83. 11		83.1-11
	물량	단가	물량	단가	
韓國	57	33.67	25	31.41	1,123
중공	496	33.35	1,233	33.50	9,884
싱가포르	764	32.76	2,195	31.87	18,006
말레이시아	63	34.45	-	-	487
필리핀	-	-	25	31.01	1,035
印度	271	34.32	151	31.52	2,709
파키스탄	122	33.48	-	-	774
스리랑카	-	-	145	31.52	142
방글라데쉬	158	33.43	-	-	629
이란	-	-	-	-	781
바레인	865	32.85	749	32.71	7,020
에멘	219	31.93	-	-	875
사우디아라비아	2,519	31.83	2,686	31.12	19,356
쿠웨이트	854	33.12	541	31.64	11,260
카타르	272	32.37	258	30.61	1,071
U A E	920	31.75	874	30.13	6,363
U. S. A	9	69.67	88	30.67	289
베네수엘라	-	-	-	-	236
남아프리카	242	34.97	-	-	241
오스트라리아	-	-	176	32.32	175
괌도(Guam)	-	-	-	-	362
計	7,828	32.60	9,133	31.71	82,818

### Ⅲ. 日本政府의 나프타對策決定內容

#### 1. 對策이 나오게 된 배경

日本의 나프타輸入物량은 연간 약 8천만배럴 정도로 전세계에서 나프타輸入량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프타의 輸入權은 실수요자인 石油化学

業界에는 부여되지 않고 오직 精油業界에게만 수입이 허용되어 왔기 때문에 나프타의 수입권이 없는 석유화학업계는 精油業界와의 나프타가격교섭에서 항상 不利益을 감수하여 왔으며(예를 들면 나프타의 輸入權이 없어 원료공급을 全적으로 精油社에 의존하고 있어 精油社와의 價格교섭時 弱勢位置에 서게 되며, 나프타의 輸入價格도 실제로 精油社가 수입; 공급했기 때문에 얼마인지 알 수 없는 点等), 國產나프타가격이 輸入나프타價格보다 비싸므로 石油化学業界는 가격이 싼 輸入나프타의 사용을 위해 나프타의 輸入自由化를 주장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精油業界는 수입권의 고수 등을 주장하며 극력 반대함으로써 兩業界間의 나프타분쟁은 오랜동안 日本의 커다란 사회문제로 비화되어 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日本石油化学業界는 국제가격보다 비싼 國產나프타가격을 국제가격 수준으로 조정해 줄 것과 海外나프타에 대한 自由輸入權을 그동안 日本정부(通産省)에 끈질기게 요청하여 왔으며, 그러던 중 드디어 82년초에는 ① 나프타의 수입자유화, ② 원료에 대한 非課稅, ③ 원료에 대한 비축의무의 철폐를 通産省에 요청하기에 이르렀으며, 만약 同事項이 정부측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나프타의 輸入業許可申請을 위해 실행사를 단행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동안 精油業界와 石油化学業界間의 분쟁이 되어 왔던 나프타 문제는 갑자기 일거에 위기를 맞게 되었다. (石油化学業界는 81년도에 第1次로 나프타의 輸入自由化를 정부에 요청했었으나,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던 적이 있었음.)

#### 2. 通産省의 나프타對策內容

日本通産省(MITI : The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은 석유화학업계의 3個項目에 대한 요청사항에 대하여 82년 4월 7일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나프타對策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공포하였다.

#### <日本通産省의 나프타對策內容>

日本정부는 石油化学製品이 국제상품인 점, 그리고 석유제품의 連產品인 점을 감안, 석유화학업

계와 精油業界間的 적절한 공존을 확보키 위하여 石油化学原料用 나프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定해 관련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 国産나프타의 공급원활

○精油業界는 수요처인 석유화학업체와 콤비나트 別로 每分期別 나프타공급계획량을 협의결정후 通産省에 보고한다.

○업체간에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通産省이 필요한 조정을 행할 수 있다.

(2) 나프타의 輸入自由化

○나프타輸入權은 石油化学業界에 부여하되 石油化学業界가 공동설립한 「石油化学 原料共同輸入會社」를 經營하여 수입토록 한다.

○精油會社는 石油化学原料共同輸入會社의 나프타輸入이 실질적으로 자유로이 이루어지도록 장애가 되는 관여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精油會社에게 저장탱크 및 부두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商業上의 대응조치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3) 国産나프타가격의 輸入價格 連動化

○나프타輸入量이 나프타수요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국제상품격인 石油化学製品의 가격은 原油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프타가격의 국제적 동향에 크게 좌우되는 성격, 즉 다른 油種과는 달리 나프타 특유의 상황과 조건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이 輸入價格이 반영되어야 한다.

- 国産나프타價格은 각분기별 전국평균 輸入나프타 CIF가격에 諸費用(금융비용, 비축비용, 세부담等)을 合算한 것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国産나프타에 대한 石油稅 부담문제는 83년 이후에 현행의 輸入나프타와 똑같이 賦課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수입나프타는 석유세가 없음)

(4) 輸入나프타의 비축의무

○輸入나프타의 비축의무는 82년도에는 他輸入石油製品과 같이 70日로 하고 83년 이후에는 別度 검토한다.

(5) Follow up 체제

○본조치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키 위해 通産省内에 産業政策局, 基礎産業局 및 資源에너지庁으로 구성된 연락회의를 설치하여 본조치의 실시에

대한 Follow up 및 필요한 조정을 행하도록 한다.

○石油政策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消費地精製方式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国内의 諸狀況으로 보아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조건의 整備를 도모키 위해 점진적으로 적극 국제화의 方向을 목표로 하여 市場메커니즘의 活用을 도모하는 한편, 나프타문제도 그 일환으로 검토를 계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IV. 通産省의 결정에 대한 兩業界의 反應

이와 같은 通産省의 나프타문제수급대책은 石油化学 및 精油業界가 일단은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나, 그 반응과 평가는 각기 상이하였으며, 몇가지 견해차이로 인하여 82년 8월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通産省이 再調整함으로써 4월부터 소급 실시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石油化学業界의 반응

通産省의 결정에 대한 同業界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나프타輸入權의 확보 및 국산나프타 가격의 輸入價格連動化에 따라 가격결정방식이 進一步 발전된 것으로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있으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略述하면,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서는,

첫째 : 국산나프타가격이 종전보다 인하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으로써 天然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美国과 캐나다에 가격경쟁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유럽메이커와의 價格差도 상당액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며,

둘째 : 国産나프타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輸入나프타에 관한 價格교섭이 종전보다 비교적 유리하게 된다는 점이다.

셋째 : 通産省이 石油製品中에서 원료로서 이용되는 나프타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평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通産省이 그 동안의 생각을 바꾸어 금번과 같이 결정하게 된 것은 국제상품으로서의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은 코스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프타가격의 국제적 동향에 크게 좌우되므로 他油種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수입가격에連動하게 된 点과 중장기적으로도 시장메커니즘의 활용을 도모하는 한편, 나프타문제에 대하여는 검토를 계속한다는 방침이 표명되었다는 점이다.

네째 : 国産나프타의 원활한 공급을 精油会社에 부과한 것도 進一步된 것이라는 것과,

다섯째 : 석유화학업계에 대한 石油稅문제와 비축문제의 과중한 부담이 다소 해소되어 가격경쟁이 향상되리라는 점 등이다.

그러나 반대로 불만족스러운 側面으로서는,

첫째 : 나프타輸入權이 석유화학업계의 個別会社에게 주어지지 않은 点과,

둘째 : 国産나프타가격이 인하는 되었으나, 그 가격이 자유시장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유럽의 石油化学會社가 구입, 사용하고 있는 나프타가격과 같은 수준의 원료가격유지로 가격경쟁을 목표로 하고 있는 日本의 석유화학회사는 이번의 새로운 가격결정방식에 따른 가격이 유럽가격보다 高價로서 유럽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힘들다는 점이며,

세째 : 新價格결정방식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는 2,900円/Kℓ의 수수료가 實勢에 비하여 비싸다는 점 등이다.

## 2. 精油業界의 반응

精油業界의 평가는 석유화학업계와는 반대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나프타 수입권에 따른 橋頭堡를 남겨 놓고 이제 전면적인 양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첫째 : 종래 精油業界가 金科玉條로 삼고 있는 가격결정에 있어서의 「코스트+적정이익」의 思考를 나프타라는 상품에서는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석유제품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둘째 : 2,900円/Kℓ의 수수료가 석유화학업계의 주장과는 반대로 오히려 實勢보다 싸다는 주장이며,

세째 : 이번 조치로 輸入나프타의 비율이 50% 정도까지 상승하게 되고 国産나프타의 수요는 감퇴되는 결과를 초래케 된다는 点.

네째 : 석유화학회사는 콤비나트 精油工場의 出資者로서 석유정제사업에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精油会社側 입장도 이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 등이다.

## 3. 通産省의 나프타대책이 4개월간 지연시행된 이유

通産省이 82년 4월에 마련한 나프타문제 수습 대책은 앞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석유화학업계와 精油業界 쌍방간의 睚眦으로 82년 8월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日本通産省이 재조정함으로써 82년 4월부터 소급 실시케 되었는데, 兩業界間의 견해차이를 보인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문제였다.

첫째는, 나프타의 비중에 따른 가격조정 문제이다. 이것은 석유화학업계가 인수하는 나프타의 비중이 변동되고 있어 나프타 비중을 일정기준을 정하고 나서 이 기준에 벗어나는 나프타에 대하여는 비중 0.01당 얼마씩 가격을 加減하자는 것이다. 즉, 석유화학업계측의 주장은,

가) 나프타비중은 국제적 平均值인 0.69~0.71을 기준선으로 하고(그러니까 平均值는 0.70이 됨),

나) 이 基準値 이외의 나프타에 대해서는 0.70을 기준으로 가격조정을 하고,

다) 실시시기는 通産省이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 81년 7월 이후의 나프타가격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주장한 반면,

精油業界側에서는 나프타가격의 실질적인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 나프타의 비중은 0.68~0.70을 기준선으로 하고(그러니까 平均值는 0.69가 됨),

나) 가격조정은 비중이 0.68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0.68을, 0.70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0.70을 기준으로 하고,

다) 실시시기도 82년 4월 이후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日本의 석유화학업계와 精油業界가 나프타의 비중에 대하여 논쟁을 벌이고 신중히 대처하는 이유로서는, 精油会社는 석유수요감소로 原油精製量은 감소되고 있으나, 揮發油수요는 증가되고 있어 揮發油收率을 증대키 위하여 나프타의 비중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국내에서 생

산되는 石油化学用 나프타의 비중은 기준선을 하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나프타의 比重 0.01 차이에 따라 나프타가격은 800円/Kℓ 정도로 변하게 되어 있어 기준치를 0.70으로 하는 것과 0.68로 하는 것과는 가격차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두번째로는 輸入나프타가격의 차이에 대한 異見이다. 新價格결정방식은 國產나프타가격 算出時에 기초가 되는 輸入나프타가격을 石油化学用 이외에 揮發油用 및 연료용도 포함된 전체수입 나프타의 평균가격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회사는 값이 싼 나프타를 수입한다 해도 정유회사가 비싼 나프타를 揮發油제조용으로 수입한다면 수입 나프타의 평균가격은 상승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82년 봄에는 精油會社의 Spot 나프타購入이 활발했었는데 82년 5월중 평균 나프타수입가격은 32.97 \$/B이었으나, 비싼 것은 37.86 \$/B이었고, 싼 것은 28.64 \$/B이었으므로 가격차는 무려 9.22 \$/B이나 되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貨加工나프타도 雙龍精油가 나프타로 수출하는 單價는 30 \$/B수준일 때 湖南精油가 수출하는 改質나프타는 이보다 4~5 \$/B이 더 비싼 35 \$/B 수준에 수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我國輸出나프타가 日本으로 가고 있으며, 日本石油化学業界는 나프타輸入時 低價輸入을 위하여 V.L.C.C를 이용하여 수송운임을 낮추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日本석유화학업계의 國產나프타가격인하를 위한 주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石油化学會社側은 이러한 현상 때문에 國產나프타가격의 算出基礎가 되고 있는 輸入나프타가격은 석유화학원료용에 한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었다.

이상의 두가지 문제점, 특히 첫번째의 나프타비중문제에 대하여는 82년 8월에 通産省이 조정함으로써 해결을 보게 되었는 바, 그 내용은 나프타 비중은 석유화학회사측의 요구대로 0.69~0.71을 기준선으로 하여 0.70을 가격조정 기준비중으로 하였으며, 81.7~82.3 期間中은 비중 0.01당 500 円/Kℓ을, 82.4~82.6 期間中은 비중 0.01당 600 円/Kℓ을, 82.7월 이후에는 비중 0.01당 800 円/Kℓ을 적용하여 가격조정할 것도 결정함으로써 나프타문제는 일단 해결을 보게 되었다.

## V. 나프타問題에 대한 未決問題와 向後展望

日本の 석유화학업계와 精油業界間的 나프타문제는 通産省의 조정에 따라 일단 해결은 보았으나, 이 新價格결정방식이 완전히 정착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 같다. 그것은 前述한 2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나프타비중문제와 輸入나프타가격의 차이에 대한 異見이 아직도 완전히 해결된 상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기본적인 문제점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첫째 : 나프타가격형성방식에 대한 兩業界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즉, 석유화학업계는 나프타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實勢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精油業界는 가격은 기본적으로 코스트를 주체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兩業界의 생각이 다르고 있는 원인은 석유화학업계는 현실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이 매우 격렬한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고, 해외로부터의 값이 싼 화학제품이 수입되고 있는데도 신경을 써야 하므로 화학제품시장에는 市場實勢에 따른 가격결정 메커니즘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나,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부분이 큰 精油業界로서는 가격에 대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코스트를 주체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일 뿐만 아니라, 이 생각은 쉽게 변화될 것 같지 않으므로 兩者의 의견차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 석유화학업계 내부의 이해상충이 나프타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있다.

즉, 석유화학회사중에도 계열화된 콤비나트 精油工場을 이용하고, 저장탱크도 적극적으로 건설하고 있어 輸入나프타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회사는 그렇지 못한 회사에 비하여 輸入나프타 사용비율이 높은 만큼 코스트경쟁상 유리한 위치에 있었으나, 이번의 新價格결정방식이 실시됨으로써 國產나프타가격이 인하되어 輸入나프타가격에 가깝게 되면 同部類의 회사들은 Merit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므로 나프타문제를 해결하려는 석유화학회사간의 움직임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나프타문제 해결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세제 : 유류수요 및 석유화학제품수요의 감소와 円貨가치하락으로 兩業界의 경영상태가 극히 악화되고 있어 서로 양보의 여지가 좁아지고 있는 문제이다. 특히 석유화학업계는 가격경쟁력의 저하에 따른 수입품의 급증으로 그 존립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있어 어떻게 하든 自力으로 가격경쟁력의 회복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나프타문제에 대한 대응자세가 상당히 진지하게 되었다.

한편 日本석유화학업계와 精油業界間的 나프타문제에 대한 向後展望은 다음과 같이 석유화학업계는 원료의 다양화가, 그리고 精油業界는 자유경쟁이 도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첫째 : 석유화학업계의 원료정책 다양화추진은 日本석유화학업계의 원료정책중 제일 바람직하고 마지막 수단으로서 해외의 低價格原料의 이용을 위한 海外立地의 진전이므로, 중단상태에 있는 이란의 石油化学콤비나트計劃과 다소 지연되고 있는 캐나다計劃도 진전될 전망이며, 국내의 石油化学콤비나트에 있어서도 LPG, NGL의 이용확대와 輸入나프타의 공동수송등도 활발한 대책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석유화학업계가 원료대책을 추진하게 되면, 國產나프타의 사용량이 감소하게 되고, 精油業界는 國產나프타가격을 거리게 되고, 석유화학업계는 國產나프타의 사용기피를 멈추게 될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형태로 國產나프타가격은 국제가격수준으로 접근이 도모될 것이다.

둘째 : 석유정책에도 변화가 생기게 하고, 精油業界에도 자유경쟁이 도입되게 될 전망이다. 이것은 精油業界도 석유화학업계와 같은 모양으로 위기적 상황에 있으며, 이 상황을 똑바로 直視만 한다면, 시장원리의 도입에 따라 일부 弱小企業의 도태도 필요하다고 인식되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精油業界의 변화에 따라 日本의 國產나프타가격은 국제가격(輸入나프타가격)에 접근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 VI. 日本의 나프타價格制度現況

日本의 나프타가격제도도 크게 나누어 2가지, 즉, 國產나프타가격결정과 나프타에 대한 稅制現況으로 구분, 설명될 수 있겠다. 그런데 國產나프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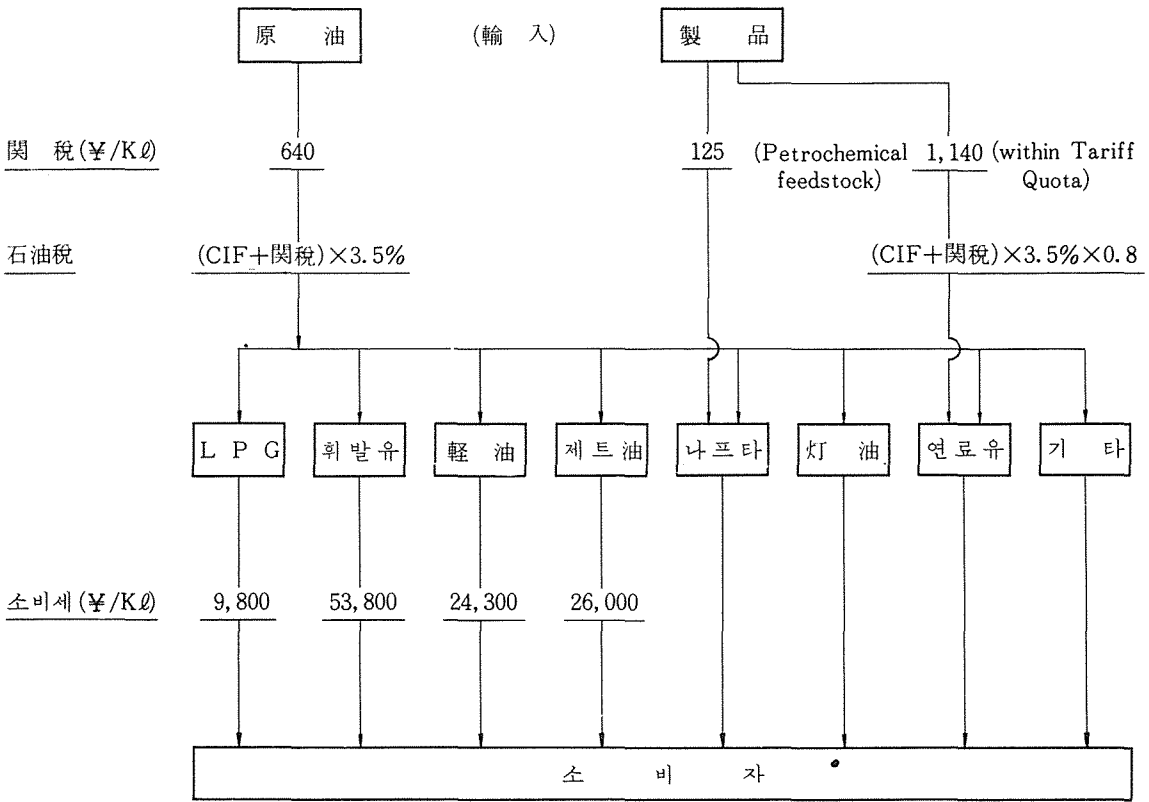
격에 대해서는 이미 本稿 앞부분에서 상세히 언급되었으므로 간략히 소개하면 종전에는 他石油製品과 같이, 나프타價格도 “코스트+적정이윤” 개념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음에 따라 輸入價보다 훨씬 高價를 유지해 왔으나, 82년 4월부터 수입가격連動化制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82년 4월부터는 國產나프타가격을 每分期別 全國平均나프타輸入價格(CIF)+제경비 2,000円/Kℓ(금융비용, 비축비용, 관세등)+석유세 1/2(900円/Kℓ)로 결정해 오다가 83년 4월부터는 82년 4월 나프타 対策時 83년 이후에는 石油稅를 보조금 등으로 대체하여 가격인하를 도모한다는 조항에 따라 그동안 석유화학업계가 부담해온 石油稅 900円/Kℓ을 대장성의 보조금으로 대체하여 그 부담을 완화조치함에 따라 國產나프타가격은 輸入나프타價格(CIF)+제경비 2,000円/Kℓ만 포함하여 결정되고 있다.

다음은 日本의 나프타에 대한 稅制內容인데(表-6)에서 알 수 있듯이 원유에 대한 關稅는 基本關稅率은 530円/Kℓ이나, 實行關稅率로서 640円/Kℓ을 부과하고 있으며, 石油稅를 CIF價에 관세를 合算한 가격에 3.5%를 부과하고 있으며, 나프타에 대한 소비세는 없다. 그러나 나프타를 輸入할 때 관세가 125円/Kℓ 부과된다.

그러나 日本은 石油化学用 나프타에 대하여는 原油關稅를 일부 환급해 주고 있는데, 그 비용은 다음과 같다. 이 제도는 1962년 日本정부가 石炭政策을 목적으로 原油에 대한 관세를 320円/Kℓ에서 530円/Kℓ으로 대폭 인상하게 되자 나프타가격의 인상으로 석유화학업계의 부담이 가중되자 同業界는 유럽주요국가의 石油化学用原料에 대한 關稅免除實態를 조사후, 이를 정부에 강력히 요망하자 日本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관세를 잠정조치법을 제정하여 1962년 4월부터 石油化学用 나프타에 대한 原油關稅를 石油化学製品製造자에게 일부 환급하게 되었으며, 83년도까지는 435円/Kℓ을 환급했었으나, 82년 4월 通産省의 나프타대책으로 國產나프타가격이 輸入價格에 Sliding되자 나프타가격은 종전보다 인하되고 揮發油등의 가격은 保合 내지는 상승되자 原油關稅의 부담률도 油種間에 불균형이 생기게됨에 따라 日本대장성은 原油關稅의 부담률의 균형을 꾀하기 위하여 84년도 稅制改正의 일환으로 석유화학용 나프타의 關稅환



〈表-6〉日本の石油税制



〈資料〉日本石油連盟

급를을 435円/Kℓ에서 Kℓ당 100엔정도 인하하여 335円/Kℓ으로 84년 4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나, 석유화학업계는 이렇게 될 경우, 연간 10억엔의 부담이 증가되어 企業收支가 악화된다는 이유를 들어 현재 이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 VII. 맺는말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나프타需給 및 價格論爭도 우리 나라 못지 않게 오래전부터 精油業界와 石油化学業界間에 뿌리깊은 爭点으로 출발하여 業界間的 이해가 상충되는 詳細한 부분까지 검토, 보완되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실정과는 정반대의 현상, 즉 우리 나라는 國產나프타가격이 수입가격보다 저렴하여 石油化学業界가 수입을 기피하고

國產나프타를 選好하고 있으며, 精油業界는 國產나프타가격의 輸入價連動을 최대과제로 삼고, 이를 실현키 위해 정부에 기회있을 때마다 이를 요청하고 있는데 반해, 日本은 이와는 반대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나프타가 石油化学製品의 원료로서 중요한 油種이라는 同質性과 各國 산업정책적 추진과정이 다르다는 異質性을 느끼면서도 어딘가 아이러니칼한 感을 느끼는 것은 숨길 수 없을 것 같다. 하여튼 우리 나라의 금번 나프타需給對策도 확실히 定着되고, 앞으로 좀더 개선되기 위해서는 精油業界와 石油化学業界가 國際나프타 가격동향을 수시 파악하면서 需要者와 供給者間에 供給物量과 供給價格의 적정선이 어느 수준이라는 것을 相互協議決定하고 양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본고가 日本의 나프타수급을 이해하는데 다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